

사료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을 환영함

노영한

(본회 전무이사)

금년은 축산농민에게는 수난의 한 해였다.

고름우유, 광우병, 젖소의 한우 둔갑, 죽거나 병든 소 도살, 죽은 닭 도계, 소내장에서 O-157 대장균 검출, 닭고기에 살모넬라 오염, 분유에서 발암물질 검출 등 계속하여 마치 먹으면 큰 일 나는 위해식품으로 인식 되어지는 한 해였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이러한 문제들이 집중 검토되었고, 이러한 자극적인 기사들 때문에 당한 피해는 막대하다. 더구나 이들 기사들 중에는 아무 문제가 안되는 것인데 매스컴에서 확대 재생산하고, 과장·착각할 수 있도록 보도한 게 문제가 되었다.

사람이 사는데 가장 중요하게 숨 쉬는 것과 마실 물인데, 이미 우리나라 대도시의 공기가 숨 쉬기조차 힘들고 가끔 오존 주의보 등으로 외출을 삼가라는 등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또 서울의 수도물은 식수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시민을 찾기 힘들 정도로 불신을 받고 있는 형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식품의 안전성 문제에 소비자들이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당연하지만, 마치 우리나라 쇠고기도 광우병이 있는 것처럼 보도되거나, 우유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되었다고

발표한 후 허겁지겁 인체에는 무해하다고 발표하는 등 소비자를 정부가 앞장서 불안하게 만드는 일은 없어야 하겠다.

이로인해 사료가격의 폭등으로 고통을 당하는 축산농민에게 이중의 괴로움을 안겨 주었다.

특히 금년에는 한탄강, 낙동강에서의 대규모 물고기 폐사와 상수원에서 녹조현상 등으로 가축분뇨처리에 대한 당국의 감독이 구속 위주로 강화되어 보통 뱃심이 없이는 축산을 더 이상 유지하기 힘들 정도로 지치고 좌절하게 만든 한 해였다.

이러한 가운데 10월 23일(수) 아침 신한국당 고위 당직자 회의에서 축산농민의 17년래 소원인 배합사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을 '97년 1월 1일부터 전면 적용하기로 당의 방침을 확정하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련법을 개정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은 양축농가에게 큰 힘이 아닐 수 없다.

이번 사료에 대한 VAT 영세율 전면적용으로 축산농민은 연간 2,200억 정도의 세금 면제 혜택을 받게 된다.

비단 세금을 면제 받는 것 이외에 개방화 시대에

10월 23일(수) 아침 신한국당 고위 당직자 회의에서 축산농민의 17년래 소원인 배합사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을 '97년 1월 1일부터 전면 적용하기로 당의 방침을 확정하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련법을 개정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은 양축농가에게 큰 힘이 아닐 수 없다.

같은 조건으로 경쟁을 한다는 의미가 있어 양축농민에게는 국가가 축산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신뢰감을 주는 것으로 큰 힘이 될 것이다.

사료에 대한 VAT 영세율 적용은 지난 대선에서 모든 정당이 공약으로 채택하였고, 15대 총선에서도 모든 정당이 공약으로 채택하여 이미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졌는데도 예산당국의 반대로 늦어져 왔었다.

다만 우리는 이번 VAT 영세율 적용이 축산업계에 산적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만병통치약이 아니라는 것을 차체에 확실히 하여야 한다. 오히려 이로서 더욱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까지 추진해온 축산발전계획을 더욱 알차게 지원하여야 한다.

방역·위생문제와 안전한 축산물 생산을 위한 사업과, 가축분뇨의 효율적인 처리 등 이제부터 투자해야 할 분야가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우리 국민은 도교의 영향을 받아 힘 센 곰은 쓸개와 발바닥에, 날랜 사슴은 힘있게 솟아 오르는 뿔에 기(氣)가 모여 있다고 생각하고 웅담과 녹용, 코브라, 코뿔소의 코를 먹어 왔다.

그러나 국민보건 향상은 이런 것들로 이루어

지기 보다는 적당량의 축산물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라는 국민식생활 조사와 함께 발표된 것은 우리가 평범한 속에서 잊고 있던 것을 깨우쳐 준 것이다.

우리 국민의 절반이 너무 체중이 무겁거나 다이어트를 한다고 하면서 체중이 너무 가벼워 건강을 해치고 있다는 발표는 앞으로 축산업이 국민보건에 기여해야 할 분야가 너무도 큰 것을 알 수 있다.

축산물은 우리가 필요한 시기에 원하는 품질을, 원하는 가격으로, 원하는 양만큼 수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자급률을 높이고 안정적인 먹거리 공급을 위해서 이제 축산농민들이 노력해야 할 때이다.

우리는 얼마 전까지만 하여도 맑은 공기, 맑은 물은 값없이 무제한 있는 것으로 착각하여 왔었다.

곧 인류는 100억에 달할 것이고, 먹거리 부족과 가격 폭등은 이미 우리가 사료곡물가격 폭등으로 체험하고 있기 때문이다.